

서울이동통신, 무선호출망 활용해 사물인터넷 사업 확대

무선호출망 사업자인 서울이동통신이 무선호출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 상수도 원격검침 서비스를 기존 지방자치단체 대상에서 민간 아파트 대상으로 넓히고, 내년부터는 원격검침 서비스 대상 상수도 이외 분야로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이동통신(대표 오갑석)은 상수도 원격검침을 시작으로 자체 무선호출망을 활용한 IoT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최근 계량기 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에 나섰다 5일 밝혔다.

서울이동통신은 우선 상수도 원격검침 서비스 대상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아파트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 기업 서비스 연

양방향상수도 원격검침 서비스 개발
수돗물 사용형태 분석해 누수율 줄여
지자체서 민간 아파트까지 공략 나서
내년부터 보안등 등 다양한 분야 진출

구개발사업에 참여, 양방향 무선호출을 이용한 상수도 원격검침 서비스를 개발했다. 무선호출망을 통해 수돗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지역 수도 사업소에 자동 전송하고, 이 데이터를 컴퓨터로 자동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검침요원이 수유가 계량기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침원을 가장한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수유가의 수돗물 사용형태를 분석해 누수율 절감과 유수율 향상 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계량기 업체와 함께 거창군에 4000여대를 공급하고 강화·익산·임실 등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최근까지 총 5000여대를 설치, 운영 중이다. 검침률이 99.7%에 이르는 등 운영 효율이 매우 높다는 평이다.

앞으로는 수도·전기·가스·난방·온수 등 원격검침 5종 배선공사가 어려워 무선을 이용해야 하는 기존 아파트를 공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

근 5개 메이저 계량기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데 이어 전국 각지의 주요 계량기 업체를 대상으로 제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력업체에는 시범사업 개념으로 50수천까지 무선호출 단말기와 통신비를 무료로 지원하고, 협력사가 원격검침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술과 통신망은 물론 관제서비스도 제공한다.

수도 원격검침 서비스를 활용해 전기·가스·난방·온수 등 원격검침 5종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산재한 배선은 무선망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제휴를 맺은 계량기 업체와 공동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보안등 업체와 보안등에 무선호출망을 연결해 누전이나 고장 등을 관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을 마치고 보안등 관제 시장 진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상수도 누수 탐지 서비스 등 다양한 IoT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김준모 서울이동통신 부사장은 "자체 무선호출망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관련 장비와 시스템을 모두 자체 개발해 운영하기 때문에 비싼 이동통신망을 빌려 써야 하는 타사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원격검침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입자를 500만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로봇에 情주는 인천

국내기업 잇단 수출계약에 고무
중장기 발전전략·실행계획 추진
로봇랜드 완공해 생태계 조성하고
전국서 로봇공연 진행해 저변 확대



로봇랜드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린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국내외 관람객을 대상으로 로봇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인천이 로봇문화 저변확대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단계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이동식 로봇공연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기 로봇공연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로봇을 활용한 에듀테인먼트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원장 김상동)은 아시아게임과 '로보월드2014' 등 행사에서 국내 기업이 잇따라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보인데다 유정복 시장이 로봇산업을 8대 전략산업 가운데 하나로 발표함에 따라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로봇산업 중장기 발전전략과 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아시아게임 행사 일원으로 실시한 '글로벌 로봇캠프'에 이어 지난 달 개최한 '로보월드2014' 행사 참여기업들이 수출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로봇캠프에는 19개국 300여명의 어린이와 로봇 관계자가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보였다.

그 결과 로보트론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홍콩 로봇기업과 총 13만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로보웍스는 중국 기업과 10만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중국 3개 기업과 100만달러 규모 수출협의를 진행 중이다. 진흥원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16년까지 인천로봇랜드 공익시설을 완공, 창조경제 로봇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특화분야인 에듀테인먼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로봇 공연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로봇문화 저변확대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가 로봇융합지원사업으로 적극 권장하는 로봇+타산업 융합을 선도하고, 로봇융합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천로봇융합발전협의회'를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융합컨설팅과 기술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 청소년 창작로봇교실, 로봇캠프를 확대 운영하고, 지난 2011년 중단한 대한민국

로봇대전 부활도 준비 중이다. 로봇랜드와 연계한 국제로봇경기대회 유치도 고려하고 있다.

최순영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지능형로봇연구소장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 등 물류인프라를 비롯해 공단 내 풍부한 로봇자원,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인천로봇랜드 등 좋은 입지적·산업적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로봇산업 발전전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인천의 특화된 'Only One' 로봇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공전략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국민연금공단 IT아웃소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웹케시 선정

내년부터 3년간 107억 규모

웹케시(대표 석창규·윤완수)는 국민연금공단 IT아웃소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IT아웃소싱 제안업체인 웹케시와 LIG시스템·NDS 등을 평가, 최근 웹케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웹케시는 내년부터 국민연금공단 IT아웃소싱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IT아웃소싱 사업은 기존 IT아웃소싱 업무를 비롯해 EDI시스템, 웹FAX, 홈페이지 운영, 기초연금·장애인활동지원 및 수탁업무 등이며 투입인력은 52명이다. 아웃소싱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으로 총 107억 원 규모다.

김한일 웹케시 공공부문 대표는 "IT서비스 수준 향상 및 IT핵심 역량 강화라는 국민연금공단의 목표를 위해 웹케시의 ICT전문가 집단을 투입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웹케시가 보유한 최고의 솔루션과 노하우를 앞세워 국내외 공공 IT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선두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웹케시는 공공SI, 전국 지자체 재·세정 관리, 정부 R&D관리, 정보보안·DB솔루션, 스마트 비즈니스 등 기존 틀을 깬 새로운 개념의 행정정보화와 투명한 재정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인천공항·한국교육개발원·대구도시공사 등 다양한 공공분야 사업에 참여해왔다. 공공IT분야 진출 2년여 만에 100억원대 공공사업을 수주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주문정기자 mijoo@etnews.com



명인이노 '파트너 데이' 열고 제품 소개 명인이노는 5일 서울 구로동 롯데시티호텔 구로에서 '명인파트너 데이 2014'를 개최하고 DDR4기반의 새로운 서버 아키텍처와 스토리지, KVM, 미니PC 등을 소개했다. 명인이노 관계자가 콜드스토리지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애니파이브, 질 좋은 DB로 '특허분석 서비스' 경쟁력

32개국 특허전문 번역해 제공하는 렉시스넥시스와 손잡고 DB 활용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탄력

애니파이브(대표 김기중)는 렉시스넥시스와 손잡고 특허분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애니파이브는 자사 지식재산권관리 및 특허 포트폴리오 솔루션에 렉시스넥시스의 해외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면 고객서비스 강화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렉시스넥시스는 32개국 특허전문을 영문 번역

해 제공한다.

애니파이브 관계자는 "렉시스넥시스의 질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면 고객 확대는 물론이고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양사의 비즈니스 결합으로 기존 개별적인 서비스를 받던 고객들이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고객들은 지식재산 시장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고급정보가 필요했지만 특정기업이나 특정 솔루션 중심의 데이터 서비스에 한정돼 비즈니스와 정보를 융합하거나 결합해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애니파이브는 IPR통합관리서비스(SmartIP)에 특허경영포트폴리오 솔루션인 P-BRAIN을

결합하고 국내외 데이터서비스를 확보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기중 애니파이브 대표는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IPR서비스 기업 간 비즈니스 융·결합 활동을 더욱 강화해 시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니파이브는 또 특허청 KIPRIS DB를 자사 솔루션에 연계하기로 하는 등 해외DB와 국내DB를 동시에 비즈니스 솔루션에 결합 제공함으로써 고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ijoo@etnews.com

어드반테스트, 차세대 DDI 테스트 시스템 발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어드반테스트코리아(대표 구로에 신이치로)는 최근 일본 본사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DDI) 테스트 시스템 'T6391'을 발표했다. DDI는 스마트폰과 TV 등의 디스플레이 동작을 제어하는 IC로 터치센서와 대용량 모작·아날로그 회로를 탑재해 테스트가 어렵다. 이번에 선보인 'T6391'은 다변화 및 고속인터페이스화, 다기능화 등 차세대 DDI 기술 트렌드에 부합한 최신 테스트 플랫폼이다.

고속 전송률과 여러 칩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512의 I/O 채널을 제공한다. 이로써 최대 3584핀 LCD 채널은 풀HD, WXGA, 스마트폰용 HD 720 등 고화질 영상표준용 DDI 테스트가 가능하다. 모바일기기 표준 인터페이스 규격인 MIPI용 DDI도 테스트할 수 있다.

모듈을 추가해 4K를 비롯한 차세대 TV용 DDI 테스트에 필요한 최대 6.5μs 속도를 제공한다. 아날로그 기능 테스트를 지원하는 16채널 아날로그 테스트 임의파형 발생기(AWG) 및 디지털 캡처 기능도 갖추고 있다.

로직 회로 테스트 효율을 높이기 위한 SCPG, 메모리 테스트 패턴을 발생하는 ALPG, 메모리 셀 고장분석에 사용하는 AFM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12월말에 출시할 예정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인스웨이브, W3C 가입하고 HTML5 표준 활동

〈국제 웹 표준 단체〉

고객의 마음을 아는 NAS 와이즈기가

안정성, 보안성, 편의성 "대한민국 1st NAS"

대한민국 네트워크 데이터 스토리지의 표준 안정성, 보안성, 편의성 "대한민국 1st NAS"

NAVER 와이즈기가

(주)인스웨이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IT미래타워 6층 606호 | TEL : 02-719-7848 | E-mail : ishinhan@ishinhan.com

인스웨이브시스템즈(대표 어세용)는 국제 웹 표준 단체인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 회원 가입하고 국제적인 웹 표준 활동에 본격 나섰다 5일 밝혔다.

인스웨이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웹 표준 활동 확산 사업 일환으로 W3C에 회원 가입했다. 인스웨이브는 앞으로 W3C 회원 가입에 따른 지원을 받고 W3C의 국제회의 참석 등 글로벌 웹 표준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인스웨이브는 지난달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W3C TPAC 2014(Technical Plenary/Advisory Committee Meeting Week 2014) 회의에 참석, 국제적인 웹 표준 기준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시작했다. 웹애플리케이션 워킹그룹과 자

문위원회회의 같은 다양한 실무 회의에 참석해 웹 표준화 관련 전문 의견을 나누고 기술협의를 진행하는 등 W3C 표준화 과정에도 참여했다.

또 이번 TPAC 2014에서 HTML5를 새로운 웹 표준 권고안으로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인스웨이브는 주력 제품인 웹 표준 기술 기반 HTML5 UI 플랫폼 '웹스케이5'의 시장 확대를 기대했다.

인스웨이브는 앞으로도 W3C 활동에 적극 참여해 웹 표준 규정과 기술을 제안하고 최신 글로벌 HTML5 표준 기술 동향과 이슈 등 웹 표준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빠르게 웹스케이5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ijoo@etnews.com

융기원·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 산업인재 양성 협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박대현)은 5일 융기원 16층 대회의실에서 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회장 윤동환)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업 융합기술 경쟁력 향상 및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업 융합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력교육 및 공동프로그램 개발 △산학연 공동연구 발굴 및 교류 △기술경영컨설팅 및 전문가 코칭 △연구시설, 장비 공동 활용 △기타 각종 행사 및 사업추진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융기원이 보유한 융합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술경영솔루션센터의 컨설팅과 월드클래스융합최고전력과정(WCCP)의 전문가 코칭을 연계해 월드클래스300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융합 인재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컨설팅·전문가 코칭기술 등을 공동연구하고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협력도 약속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